

역사적인 주체 105(2016)년 신년사의 기본사상을 파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에 대하여

2016.2.18

중앙청상회 간사장 리태일

올해 신년사는 그 어느때보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받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올해 36 년만에 당대회가 열린다는것과 관련되고있다.

※7 차당대회에 대하여

-36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

-김정은시대 첫 당대회

-본래 당대회의 위치와 사명-전략적로선,장기적전망이 제시

-새로운 통일방안, 중대제안

둘째로, 조국통일문제가 종래보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언급된것과 관련된다.

※키워드-남조선의 진보적학자인 정창현씨는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의 정치
에 있다고 주장

이것은 기본종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활동의 근저에 놓여있는 기본리념이라고
할수 있다.

보다 중요한것은 그 기본리념을 실현하는것이고 그것이 곧 강성국가건설이라는
데 있다. 이런 각도에서 이번 신년사의 키워드를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신년사를 학습함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의 기본흐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의 요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구상을 파악하는데 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올해 신년사의 기본특징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데 있다.

※신년사에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일 구
상이 집대성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신년사는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
적지침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올해 신년사의 역사적지위가 있다.

1.신년사의 기본체계

△앞말-새해인사

1.지난해의 총화

△지난해의 특징과 이룩된 성과

-2015 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

-성과

①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였다.

(내용)

-백두의 혁명정신과 과감한 군민협동작전으로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1 년을 10 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70 돌경축행사를 통하여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

②조국과 민족앞에 닥쳐온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③주체혁명의 혈통,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이다.

△성과의 요인과 교훈

①지난해의 모든 성과들은 백두의 념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이며 그것은 조국과 혁명에 바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

②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는것, 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자랑스러운 총화입니다.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어떤 각도에서 파악하여야 하는가?

①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담보와 물질경제적잠재력, 문명과 번영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것을 자랑차게 총화하신것이다.(이에 대하여서는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관련하여 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겠다.)

※로동신문 1월 4일 사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 제 7 차대회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

※구체적성과 -조선중앙통신사보도(2015.10/11)

②조미전면대결전의 양상을 넘두에 두고 파악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상보(2015.12/24) 새 전쟁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2014년부터 반미전면대결전은 총공세단계에로 이행하였다.

2014년 2월과 3월 2번연속 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 소집

원수님-최후결전준비의 완성을 결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4년 4월 1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마친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짓부셔 버릴것이다.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미관계의 총결산을 위한 투쟁의 전개를 선포-총공세에로 넘어간다는것!

이때로부터 인민군대 현지도로부터 싸움준비완성(실전을 방불케하는 군군사훈련)에로 シフトチェンジ

2014년 7월 15일 군부대를 시찰

미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다는것,미국은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있다고 말씀 (인권문제를 들고나옴)

11월 8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공화국을 방문 (オバマ특사-친서)

※최후발악을 그만둘데 대하여 경고(미국-무시)

이것으로도 안되니 또다시 꾸며낸 모략사건이 <ソニー社 サイバー攻撃事件>

1月2日 行政命令(制裁)に署名 (이레적 休暇中、ハワイでゴルフ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에게는 방도가 없다는것(정책전환이 전면에 제기된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분석종합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5년 신

년사에서 미국에 대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것>을 제기

이어 1월 7일 국방위원회 정책국성명-政策轉換を要求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미한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림시중당 하겠다는 제기를 했다는것을 공개

이에 대하여 오바마는 2015년 1월 22일 유튜브와의 대담

<군사적선택지는 없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류입으로 반드시 붕괴 시킬것이다(내부와해, 붕괴)>고 떠벌이었다.

이후 군사적압박, 경제제재, 심리모략전, 인권문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8월에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감행-분쇄

이후 공화국의 제의를 모두 무시하면서 압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렇듯 2015년은 조미대결전의 최절정을 이룬 해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서 당창건 70돛행사는 핵폭탄을 떠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특별히 강조하신것이다.(말하자면 승리를 선포하신것이다)

2.올해 과업과 방도

△올해의 위치와 요구성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 - 여기에 올해 신년사의 기본종자, 사상적알맹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후에 구체적으로 해설하겠다.

1)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

①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농산,축산,수산,경공업,국산화,산림복구,과학기술,경제작전과 지휘 등)

②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사상적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③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 문제를 첫째과업으로 제기하였다는데 주목을 돌리되 최전성기의 양상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악하여야 한다.

3 가지문제는 과업이면서 이것이 실현될 때 최전성기에 들어서게 된다는것이다.

-경제강국,인민생활향상-총력을 집중⇒기본목표, 기본과녁

-정치군사진지를 계속 다져나간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문명국건설의 체모와 목표, 높이를 밝히신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이미 최전성기에 들어섰다는것, 이에 기초하여 경제강국건설, 문명국건설에 총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제기한것이다.

△방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로동계급,농업근로자,지식인,청년들앞에 나서는 사명, 과업)

-일군들이 고결한 안생관을 지니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과학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본태와 대풍모(집단주의)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방도가 종래와 다르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우리 인민의 정신력, 일심단결의 힘을 믿고 우리 식으로 열어나가기려는 구상과 의도가 구현된 방도이다.

-로동계급,농업근로자,지식인,청년들앞에 나서는 사명,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

-일군들의 인생관(모래알), 멸사복무

-집단주의적경쟁열풍(우리 식의 건설방법, 군민협동작전)

-자강력(자주의 길!)

2)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과업

△지난해 총화

△올해 과업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조국일일 3 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3)대미,대외사업

△맺음

※참고 - 대미관계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상보(2015.12/24) 새 전쟁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로동신문(2015.12/29) 그 누구도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①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문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구상의 중요기둥의 하나이다는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2015 년 조미전면대결전과 북남관계의 결과와 교훈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새로운것이 없다는 분석)

-결과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완전파탄되었다.(정치,군사,경제,문화에 이르는 모든 면에서 파탄)

-교훈

미국에 모든 실권을 넘겨바친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이땅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정전협정체결의 당사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그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최후성전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

평화협정체결제의를 미국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2.신년사의 기본사상과 그를 깊이 파악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016 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르치신바와 같이 올해 신년사의 기본사상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올해 신년사의 키워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라는데 있다.

△이 구상은 작년말에 이미 제시되었다.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 보내신 서한(2015.11.20)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데 대하여 지적

※12 월 4 일 황철의 호소문

《오늘의 총공격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려보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

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이며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를 마련
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다.》

※12월 7일 로동신문 정론 《인민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제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달려온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부르며
서 행복이 쏟아지는 최절정으로 올라서야 한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호는 조국이 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면적인 단계
에 확고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총성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과 그 뜻을 반영한 호소문, 정론을 보면 경애하는 원수님
의 전략적구상은 7 차당대회를 계기로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본격적
인 투쟁단계에로 들어서야 한다는 구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 이 구상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었다.

※신년사의 기본사상, 구상과 결부하여 첫 현지지도소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최고령도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1/1 과학기술전당 준공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고 뜻깊은 말씀
(중요한 메시지)

-강성국가건설(지식경제강국)의 최전성기를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다그쳐나가
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뜻이 담겨져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통해 실현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는 군민협동작전으로 새로운 천리마,만리마속도(1년을 10년
맞잡이)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역사에서 전성기라 하면 언제인가?

※전성기란 일이나 운동이 진행되는 형편이나 상태가 한창 꽃피고 발전하는시기
를 말한다.

國語辭典 一人氣・勢力・実力などが、もつとも盛んな状態にある時期。

그것은 1980 년대를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력사에서 요즘처럼 일이 잘되여나가는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또 내가 지금처럼 마음 편안하게 일해본적도 지난날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때를 가리켜 우리 당이 흥하는 시대,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1980 년 10 월

그러면 왜 1980 년대를 전성기라고 말하는가? (근거)

- 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과학적인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승리의 한길을 줄달음쳐나아갈수 있게 되였기때문이다.
- ②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수령, 당, 대주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이룩되였기때문이다.
- ③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꾸리시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지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짓부실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기때문이다.
- ④ 위대한 장군님께서 《80 년대속도창조운동》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시였기때문이다.
- 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키시여 새로운 비약을 위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마련하시였기때문이다.

※5 가지 분야 -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비약적발전이 이룩(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 하나하나 현실화!)

- ① 사상리론 ② 일심단결 ③ 군사력 ④ 경제력 ⑤ 문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전성기구상이 제기된 배경,근거를 파악하여야 한다. (최전성기구상은 어느때나 제기할수 없다, 일정한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오늘날 최전성기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력사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2007 년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전략적구상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2007 년구상이란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6 년 10 월 9 일에 핵시험을 성공시킨 다음날에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이제는 적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새로운 년대가 시작되었다.》《조선이 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력사는 영영 끝장났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것만큼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구상은 2007 년 새해공동사설을 통하여 세상에 공표되였다.

2007 년 새해공동사설에서는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년대는 조국번영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년대, 위대한 번영의 시대》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전략적구상에 기초하여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 력사적구간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의 대문을 열어제길데 대한 2012 년구상을 밝히시였다.

2012 년이후는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2007 년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 력사적구분

2007 년이후---⇒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대

2008 년---2012 년⇒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기간

2012 년---2015 년⇒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강성국가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의 마련)

2016 년---⇒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시기

-주체의 세 100 년대의 전략적로선과 구상실현에서 지난 4 년간이 어떤 시기였으며 이룩된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자난 4 년간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담보와 물질경제적잠재력, 문명과 번영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시기였다.

※로동신문 1 월 3 일 사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 제7 차대회를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

※정론 《인민의 꿈이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의 최상의 문명을 이루고있으며 앞으로도 당당히 이를것이다. 발전의 토대와 경험, 무제한한 힘과 잠재력을 쌓은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홀려온 4 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문화전성기를 위한 창조의 본보기들이 마련되고 그 경험이 축적된 자랑스러운 나날이었다. 이룩한 성과도 놀랐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그렇게도 빠른속도로, 최고의 수준에서 이룩되었다는것을 우리자신도 믿기 어렵다.>

①정치사상적토대의 마련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지도적지침이 마련
-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비상이 강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 4일로작에서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70성상 주체혁명 위업을 수행하는 력사적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고 가르치시였다.

※불멸의 업적(2015년 10월 4일로작)

- ①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웠다(가장 위대한 업적)
- ②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이 실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청년강국 건설)
- ③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기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특성(2015년 10월 4일로작에서 새롭게 규정하신 내용)

- ①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당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그 계승성을 실현하는것이다.》

②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수령, 당, 대중은 운명공동체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는것처럼 당도 인민대중과 떨어져서는 위력한 정치조직으로 될수 없으며 정치적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③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

《령도방식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고 구현하여오신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일심단결이 새로운 경지에서 강화

2016 년 신년사 《당창건 일흔돛 경축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10 월의 경축광장에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보다 더 튼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 》라고 지적하시였다.

-청년강국으로 전변

2016 년 신년사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입니다》라고 지적

②군사적토대의 마련

수소탄까지 보유한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전변-그래서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것, 인민생활향상이 천만가지 국가중의 제일국사라는 변화에로 이어졌다고 할수 있다.

③경제적토대의 마련

2016 년 신년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
를 열어놓았습니다.》라고 지적

④문명국건설의 토대

문화전성기를 위한 창조의 본보기들이 마련되고 그 경험이 축적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라는 구호제시의 토대가 마련되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4 년 4 월 15 일연설을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주체
의 새 100 년대 전략적로선과 구상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3 년 신년사에서 2012 년에 주체의 100 년사를 총화하
고 새 100 년대를 개척한 조건에서 2013 년부터는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
가는 다음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것, 거기서 나서는 과업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과 통일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여는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선군조선을 천하
제일강국으로 만드는데 있다는 전략적구상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2014 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시였
다.

2015 년 신년사는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작전도

주체혁명위업이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는 새로운 역사적단계, 선군조선의 일대번
영기를 창조하는 본격적인 투쟁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
였다.

2016 년 신년사 -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
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자랑
스러운 총화입니다.(지난 4 년간의 총화로 파악)

※대업-강성국가,문명국건설

결론적으로 오늘의 시대는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시대
이며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단계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최전성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전성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노동신문의 글이 아직 발표안 되고있다.

이를 리해하는 키워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에 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①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시대, 세계를 굽어보며 비약해나가는 시대

※최상의 문명~전체 인민이 세계를 굽어보며 다같이 누리는 사회주의문명이고 인민의 요구와 리상, 우리의 자립적토대에 뿌리를 둔 조선식문명이며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완벽한 문명, 만년보증의 문명이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의 전반적부문을 포괄한 전면적개화이고 세월을 따라가는 문명이 아니라 남들의 열, 백걸음을 한달음에 따라잡는 초음속의 문명이다.

※비약~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세계를 따라갈것이 아니라 도약하며 앞서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은 년대별로 실현하는것이 나니라 년대와 년대를 넘어 실현해나가야 한다-10년을 1년맞잡이!

②위대한 수령님의 리상과 념원, 인민의 꿈이 현실로 꽃피여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울려퍼지는 시대

※리상과 념원, 인민의 꿈~사회주의강성국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1998년 5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

2013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는것이다.

※현실로 꽃피여~향유(누리는것), 실질적인 덕을 보는것을 말한다.

2015년 새해 첫 현지도- 평양 육아원,애육원

원수님-우리가 혁명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높이 더 힘차게 울릴것이다! 고 말씀

-일련의 말씀들에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주어 로동당만세
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내실화-진심으로!)

정론-〈정치사상강국으로 존엄높고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그 미래가 굳건하고
창창한 이 땅, 여기에 인류가 리상해온 문명의 그 모든 황홀한 별들을 따다놓으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고 우리의 최후승리이다.〉

※참고-최후승리란

2015년 1월 13일부 로동신문의 《정세론해설》 《우리는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
룩할것이다》에서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고 지
적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투쟁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곧 우리 나라가 강성국가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는것
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최후의 승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복무하
는 사회주의, 인민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
한 사회주의강성국가을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견지)

주체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의 견지에서 보면 정치, 경제, 군사, 문
화의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
다.(사회주의수호전의 견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
하고 전체 조선민족이 강성부흥의 시대에 사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의미한다. (민족적견지)